

중국국제주류박람회(CIADE 2007) 한국관 참가 결과

임원혁 과장 기획조서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 까지 4일간 중국양주공업협회 주최로 “2007 중국국제주류박람회(영문명 China Int'l Alcohol Drinks Expo 2007)”가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전람관에서 개최되었다.

중국양주공업협회는 중국의 주류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최근 주류시장에서 중국내 한국술에 대한 인기가 높은 점을 인식하고 우리협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7월에 회원사와 공동으로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술의 중국시장진출 및 양국 주류산업과의 우호적인 교류유지를 위해 보혜양조, 충복소주와 함께 참가를 하게되었다.

협회 전시부스
2부스, 1부스=3mx3m)



- 좌) 보해양조 전시부스
- 우) 충북소주 전시부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중국국제주류박람회는 2만평방미터 규모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여국 120개 업체가 참가하여 맥주, 와인, 증류주 등 각국의 다양한 주류를 선보였다. (국내관에는 중국내 메이저 주류업체 100여개와 국제관에는 한국, 미국, 이태리, 칠레 등 19개업체가 참가 하였다) 대한주류공업협회는 보해양조, 충북소주와 함께 4부스 규모(부스=3m X 3m)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를 하였으며 회원사에서 생산되는 소주, 맥주, 위스키, 과일주, 약주 등 약 150여개 제품을 주종별로 전시를 하였다.

한국술 전시



박람회 기간동안 협회관에서는 한국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보혜양조, 충북소주는 부스내에서 자사제품에 대한 시음 및 상담활동을 하였다. 또한 국순당 북경지점에서도 협회관을 이용하여 시음 및 상담활동을 하였다. 박람회 기간중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약 1만 3천명의 방문자가 참관을 하였으며 대부분 현지 중국인으로 주류관련 도매상, 호텔등 업소관계자, 언론인, 일반인 등이 참관하였다.

중국인들의 한국술에 대한 높은 관심



국제관중 한국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많은 관람객이 방문을 하였으며 한국술의 제조방법, 원료가격, 생산업체등에 대해 물어보거나, 사진촬영, 시음등을 주로 요청하였다. 특히 중국북경CC TV, 중국주류공업협회 소식지 등 언론매체에 한국관이 소개되는등 중국현지인의 관심은 뜨거웠다.

★ 한국술에 대한 방문객 주요 문의 및 평가

- 한국술은 용기와 디자인이 다양하고 이쁘다
- 한국술에 대한 가격 문의
- 소주에 특히 관심을 많이 보였으며, 약주, 청주, 과실주 등에도 상당한 관심
- 맥주의 경우 펠트 및 알루미늄 용기제품에 관심
- 청주 및 약주는 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심

중국 국내관 주류업체 전시부스



금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술에 관심있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한국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보혜양조의 “복분자”와 충복소주의 “휘”는 중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중국시장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중국내 바이어들과의 다수의 상담을 통해 중국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 3회 중국국제주류박람회는 2008년 9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국제전시센터(China Int'l Exhibition Center, Beijing)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회원사는 박람회 홈페이지(www.cia.de.com.cn)를 참조하면 된다.

북경전람회관 입구

